

석사학위논문

색으로 표현된 인간의 욕구

2 0 1 5 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회 화 과

서 양 화 전 공

강 유 나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허은영

색으로 표현된 인간의 욕구

Human Needs Expressed by Colors

2014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회 화 과

서 양 화 전 공

강 유 나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허은영

색으로 표현된 인간의 욕구

Human Needs Expressed by Colors

위 논문을 미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회 화 과

서 양 화 전 공

강 유 나

강 유 나의 미술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 0 1 4 년 12 월 일

심 사 위 원 장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색으로 표현된 인간의 욕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회 화 과
서 양 화 전 공
강 유 나

본 논문은 색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고찰하고 본인의 작품이 전개되는 과정을 다룬다. 또한 작품 제작 기법과 작품의 조형적 요소 중 색의 감성표현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색은 각기 다른 감각과 감성을 지니고 있다. 색과 감정은 우연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일생을 통해 쌓여가는 경험과 어린 시절부터 언어와 사고로 뿌리내린 경험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색과 감성은 심리학적인 상징과 역사적인 전통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인간의 감정은 색보다 훨씬 다양하다. 같은 색이라도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때로는 서로 상충되는 영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색채에서 드러나는 감성은 어떤 언어보다도 감동적이고 빠르며 정확하게 인식되고 인간의 다양한 심리적 욕구를 대변한다. 그러므로 예술 작품에서 색채는 형식과 더불어 작가의 의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본 요소이다.

본인의 작업에서 매니큐어는 현대인의 상징적 욕망을 뜻한다. 물질주의 사회에서 소비되는 상품은 사용가치가 있는 물건의 차원을 넘어서 남과 구별되고 싶은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자신을 꾸미고 싶은 욕구는 단순히 개인적인 것

만이 아니라 소비의 정도로 개인을 판단하게 되고 각자의 개성과 취향을 드러내 준다.

본인의 작품은 색채를 통해 인간에게 내재된 욕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색을 통해 심리적 현상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무의식적으로 표출되는 감정들을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소비시대에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사치스러운 욕망의 단편을 시각적으로 형성하여 새로운 회화적 시도에 대한 가능성을 열고자 한다.

【주요어】 색과 감정, 색채의 영향, 상징적 욕망, 차이화의 욕구, 소비시대

목 차

I. 서 론	1
II. 작업형성의 배경	3
2.1 색채와 생활의 관계	3
2.2 색채가 갖는 사회적·심리적 의미	3
2.3 색채 연구의 역사	4
III. 작품표현의 이론적 바탕	5
3.1 인간의 심리적 욕구를 대변하는 색	5
3.2 매슬로(Maslow)의 인간 욕구	6
IV. 작품 전개 과정	10
4.1 소재로서의 매니큐어	10
4.2 작품 제작 방식	11
4.3 작품 속 주요색의 특징	12
4.4 작품 설명	13
V. 결 론	25

참 고 문 헌	26
---------------	----

ABSTRACT	27
----------------	----

표 목 차

<표 1> 색 경험의 6단계	5
<표 2> 매슬로의 욕구 피라미드	8
<표 3> 매슬로의 욕구 7단계	9

그림 목 차

<그림 1> <i>A Glittering Moment</i>	15
<그림 2> <i>A Glittering Moment</i>	16
<그림 3> <i>A Glittering Moment</i>	18
<그림 4> <i>A Glittering Moment</i>	19
<그림 5> <i>A Glittering Moment</i>	19
<그림 6> <i>A Glittering Moment</i>	20
<그림 7> <i>A Glittering Moment</i>	21
<그림 8> <i>A Glittering Moment</i>	23
<그림 9> <i>A Glittering Moment</i>	23

I. 서론

색채는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는 요소이기 때문에 수많은 색채에 둘러싸여 생활하면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색채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칸딘스키 (Wassily Kandinsky:1866-1944)는 색채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강렬한 느낌을 지적한다.

색채는 건반이고, 눈은 망치이며, 영혼은 맑은 울림 줄을 가진 피아노이다. 미술가는 영혼에 진동을 주기 위해 한 건반 혹은 다른 건반을 두드리면서 연주하는 손이다.¹⁾

이것은 색채가 이상한 힘을 가졌다는 것 즉 인간의 영혼이 포함된 정신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색채는 인간의 감정을 대변해주는 요소이며 응축된 모습으로 울림과도 같은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감정을 대변하는 인간의 심리욕구를 나타낸다. 색채를 통해 억압된 감정을 작품에서 표출되기도 한다.

생리적 욕구보다는 심리적 욕구가 더욱 강하게 어필되는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이미지가 전개되고 확장되는가를 탐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찾으려 한다. 심리적 욕구의 표현 수단인 색채가 본인 작품에서 주는 이미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인간의 욕구는 선천적인 생리적 욕구와 후천적으로 형성된 파생적 욕구로 나누어진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고, 생존을 보존하기 위해 사회적 욕구를 실현시켜야 한다. 현대사회는 생존 보장 외에 신분과 지위와 소유에 따라 인간의 욕구도 다양해졌고 물질만능주의는 소비욕구를 부추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고나 드라마에서 보여 지는 문화는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욕망을 추구하게 한다.

1) 안나 모진스카, 『20세기 추상미술의 역사』, 전혜숙 옮김 (시공사, 1998), p.28.

매스미디어에 친숙해지면서 소비와 함께 욕망도 늘어난다. 현대사회에서의 인간의 욕망은 더욱 다양해졌고 시각화 되었다.

본론의 첫 장에서는 색채와 생활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여 색채가 갖는 사회적·심리적인 의미 및 색채 연구의 역사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프랑크 H. 만케(Frank H. Mahnke)의 색 경험 6단계와 인간의 심리적 욕구를 대변하는 색에 대한 자료조사를 아브라함 H. 매슬로(Abraham H. Maslow)의 동기이론 즉 욕구에 대한 이론으로 본인작품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작업의 소재가 되는 매니큐어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작품의 제작 방식 및 제작 과정에 대한 개별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대표적인 작품 5시리즈를 통해 작품의 형식을 분석하고 색채와 욕구가 어떻게 구체화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작업 형성의 배경

2.1 색채와 생활의 관계

우리는 눈을 뜨고 있는 순간 뿐 아니라 눈을 감고 있는 순간에도 색¹⁾을 느끼고 본다. 그만큼 색은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모든 사물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색은 삶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인간 생활에서 모든 것은 색이며 인간은 색채의 한 가운데서 색채와 함께 생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색에 빨려 들어가고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몸은 다양한 색채를 필요로 하며 자신에게 필요한색을 직감한다. 이제 색채는 한 분야에만 국한된 요소가 아니라 인간 생활의 전면을 장식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2.2 색채가 갖는 사회적·심리적 의미

색채는 지구촌의 인류가 어디에서나 지각하고 사용하는 보편 매체이자 문명의 기반이다. 그러나 시공간에 따른 상대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든 색을 고르게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한 시대 또는 한 사회의 색채는 시대정신과 사회사상을 반영한다. 같은 문화권에서 공유되는 색채 유형은 기후나 풍토와 같은 자연적 요인, 사상과 관습, 시장과 산업, 재료와 기술, 제도와 법규에 따른 한 시대와 사회의 총체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형성되는 문화적 산물이다. 따라서 그것을 객관화 하거나 표준화되기 어려우며, 시공간을 달리하면서 상대적 가치를 갖는 민감한 요소이다.²⁾

1) “색이란 빛을 말한다. 빛이 있음으로 해서 존재하고 인식되는 실체인 것이다. 어원적으로 빛이 있어서 감추어진 사물의 정체를 보여주고, 그 사물의 특성을 알려주는 실체가 빛인 것이다.” 문은배, 『색채의 이해』 (도서출판 국제, 2002), p.6.

한편 색채는 지역이나 집단의 성격을 대변하는 상징 언어가 되기도 한다. 국기의 색은 대표적인 상징 색채 언어이다. 이렇게 색채는 단순히 하나의 요소로 존재하기보다 주변의 색이나 관찰자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제 색채는 심리와 관련하여 효과, 치료, 상징, 유추 등으로 해석되고 이를 이용한 색채조절, 색채처방까지 발전했다. 색채 심리 분야는 색채가 갖고 있는 특성 중 물리학 에너지와 환경을 통하여 인식되고 발전된 것에서 지역별 인간의 감성까지 모두 포함한다. 실제로 색채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통한 인식과정을 거치고 시각적·관념적·상징적·생리학적 측면에서 많은 인식효과를 동반한다.³⁾ 그러므로 인간의 감성, 관찰 환경, 지역문화에 이르는 다양한 측면의 이해가 필요하다.

2.3 색채 연구의 역사

초기의 색채 연구는 아무런 도구 없이 색을 바라보는 인간의 주관적 감성에 의존하여 빛의 원리를 추론하였다. 뉴턴이 빛의 분광실험으로 색의 물리학 시대를 열은 후 색채 측정과 혼색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색을 물리학적으로 정량화·좌표화 하게 되었고 색채는 시지각적으로 표준화되고 기호화되어 전달이 가능한 틀이 마련되었다.

보는 대상으로서의 색에서 사용하는 수단으로서의 색이 된 것이다. 산업사회에서 색채는 산업용도별 가공과 적용의 시대였고, 다중매체의 시대를 맞아 그래픽과 영상, 인쇄와 모니터를 통한 감법, 가법, 혼색이 규명되고 색채의 효과적인 매체간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제 다시 색채는 인간의 감성과 본성에로의 복귀를 지향하고 있다.⁴⁾

2) 권영걸 외 25인, 『색이 만드는 미래』 (도서출판 국제, 2002), p.5.

3) 문은배, 『색채의 이해와 활용』 (안그라픽스, 2005), p.16.

4) 권영걸 외 25인, 위의 책, pp.5-6.

Ⅲ. 작품 표현의 이론적 바탕

3.1 인간의 심리적 욕구를 대변하는 색

보고 느끼는 색채는 하나로 존재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색은 대비와 조화 그리고 동화라는 색을 느끼는 과정을 포함한다. 색을 느끼는 과정에서 하나의 색은 대비를 통하여 본래의 색과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동화 작용으로 유사한 색이 되기도 하고, 다른 색과 비교되어 무겁게 혹은 가볍게 또는 따뜻하거나 차갑게 느낄 수도 있다.

색채가 주는 심리적인 영향은 개인에 따라 선호색과 혐오색이 되기도 하고, 집단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시각언어가 되기도 한다. 색채가 가지고 있는 주관성과 객관성 및 다양성은 인간의 심리적 욕구를 대변한다. 국제 색채 상담협회(IACC) 회장인 프랑크 H. 만케(Frank H. Mahnke)는 그의 저서 『색, 환경, 그리고 인간의 반응』에서 색 경험의 6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색 경험이란 색채의 인식과 전달 과정에서 관찰되는 색채관찰자의 반응이다.

구분	단계	인간의 반응
능동적 의도된 단계	6	개인적 관계
	5	시대사조, 패션, 스타일의 경향
수동적인 영향	4	문화적 영향과 매너리즘
	3	의식적 상징화, 연상
생물적 반응의 단계	2	집단 무의식
	1	색자극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

<표 1> 색 경험의 6단계

1단계는 생물학적 반응의 전달단계이다. 색채보다는 생물의 생존과 관계되는 가장 본능적인 반응으로 색채의 기초적인 식별과 생물학적 에너지의 보존과 관계있다.

2단계는 집단 무의식으로 정의된다. 칼 융(Carl Gustav Jung)에 따르면 집단 무의식은 일생 동안 축적된 개인적 체험을 기반으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반응과는 별개인 정신의 일부이다. 인간이 태초부터 전해져 온 체험의 기억들이 유전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집단 무의식은 최초의 인류나 집단으로부터 경험되고 학습된 색채와 관련된 유전적 연상이다.

3단계의 의식적 상징화 연상은 일부 학습적인 면을 갖고 있으며 같은 문화와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4단계의 문화적 영향과 매너리즘(mannerism)은 특정 문화나 단체 등의 특징이 되는 색의 연상이나 상징화로 체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앞의 연상과 달리 지역적 특성이 강하고 소속 단체에서 학습된 결과를 보인다.

5단계는 시대, 사조, 패션, 스타일의 경향을 나타내며 이 단계에서 색채는 계속 변화하므로 우리는 일시적인 색채의 경향을 체험한다. 상품의 판매 방법이 발달하면서 특정 시기의 정신을 따르게 되고 색채를 자주 변화시키며 지역과 인종을 초월하기도 한다.

6단계인 개인적 관계에서는 보편적인 색채의 경향보다 대인적인 호감이나 혐오감이 작용한다. 특정한 이유나 객관성보다 개인적인 기호가 우선되므로 일시적인 경향일 수도 있고 교육이나 체험을 넘어서 색채일 수도 있다.¹⁾

3.2 매슬로(Maslow)의 인간욕구

욕구(needs)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 좋은 것, 필요한 것, 필수적인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결여되거나 결핍된 상태를 지칭한다. 인간의 행동과 행동을 추진하

1) 권영걸 외 25인, 『색이 만드는 미래』 (도서출판 국제, 2002), p.18.

는 욕구는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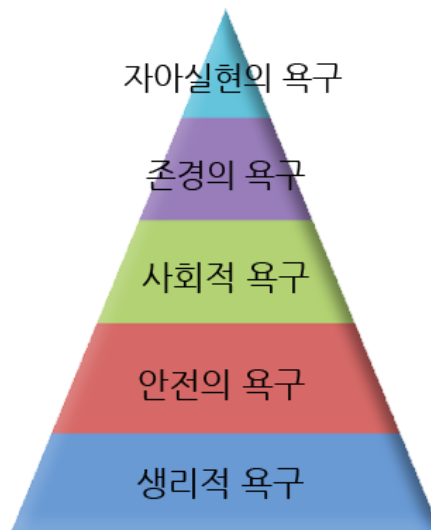
우선 욕구는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와 심리적 욕구(psychological needs)로 구분될 수 있다. 생리적 욕구는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신체적 조건으로 개체의 생존과 보존에 기여한다. 이 욕구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선천적 욕구라고 할 수 있으며, 호흡, 식욕, 수면, 성(性)에 대한 욕구가 이에 해당된다. 심리적 욕구는 후천적인 경험과 학습에 영향을 받는다. 권력, 성취,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이에 해당되는데 다양한 인간의 삶이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될 수 있다. 심리적 욕구는 생리적 욕구로부터 파생될 수 있으나 인간은 후천적 경험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개인차가 크다.²⁾ 따라서 심리적 욕구는 인간이 갖는 욕망을 더욱 극대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아브라함 H. 매슬로(Abraham H. Maslow)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자기 자신의 성장을 이루고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는 자기 성장을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가 충족되는 5단계를 거친 후 우주적 합일에 이른다고 보았다.

인간을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동기화 되어 있는 동물로 보고 충족되지 못한 욕구는 인간에게 긴장을 유발하여 평형 상태를 회복하고자 하는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구는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몇 가지 공통된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보편성이 있는 공통적인 욕구들은 충족되어야 할 순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1943년에 발표한 논문 “인간 동기의 이론(*A Theory of Human Motivation*)”에서 각 욕구는 우성 계층(hierarchy of prepotency)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욕구 피라미드의 하단부에 위치한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상위 계층의 욕구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러한 욕구의 계층은 고정되어 있기보다 상대적으로 나타나며 하위 계층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상위 계층의 욕구가 생긴다.

2) “한자사전,” 검색일자: 2014.12.10. <<http://m.hanja.naver.com/search/word?query=%EC%9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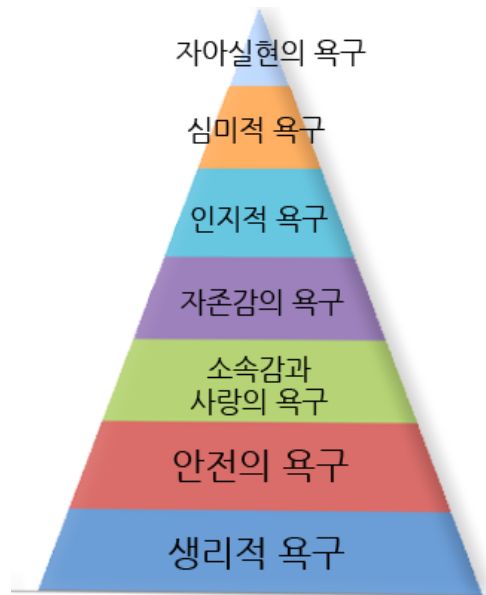
<표 2> 매슬로의 욕구 피라미드

Maslow의 욕구 단계 이론³⁾은 인간의 성장 단계를 설명하는 발달 심리학의 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 이는 내 작업에서 추구하는 인간의 심리적 욕구를 뒷받침하는 주요한 이론적 바탕이 된다.

후에 그는 존중 욕구와 자아실현 욕구 사이에 인지적 욕구 (cognitive needs)와 심미적 욕구(aesthetic needs)를 추가하여 7단계로 수정했다. 자아실현 욕구 위에 초월욕구를 놓음으로써 자기 초월을 가장 높은 단계의 동기 혹은 인간 삶의 완성이라고 했다.

이를 작업과 연관지어보면 평범한 사물일지라도 놀라움으로 바라볼 수 있는 풍부한 감성이며, 창의적이고 독창성을 요구한다. 또한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하려는 단계로 경험의 순간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무한한 기쁨과 자유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 경험이 머릿속에 남아 계속 그 경험을 쌓으려 노력한다고 볼 수 있다.

3) “매슬로의 욕구 단계설,” 검색일자:2014.12.1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70231>>



<표 3> 매슬로의 욕구 7단계

개인의 욕구는 욕구가 발현되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때로는 각 욕구가 상호 작용하며 나타나기도 하고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점은 Maslow의 이론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나의 작업에서도 큰 과제가 될 것이다.

IV. 작품 전개 과정

4.1. 소재로서의 매니큐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시적 이미지가 강조된다. 타인에게 인정박기 위해서는 보여 지는 것보다 과장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물질과 이미지가 부각되는 동시대 예술은 전보다 더욱 대중을 의식하게 된다.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상품들을 쉽게 접하게 되었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자 하는 욕구가 자연스레 생겨나는 것은 일상을 심미화 하려는 욕구 때문일 것이다.

『미술과 시지각 *Art and Visual Perception*』이라는 저서로 시각 예술의 근자탐을 쌓은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은 시각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작용인가. 봄으로써 무엇이 생기는가. 눈은 과연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본다는 행위 자체가 예술적인 시각이다. 창조적 활동이며 생산적인 사고이다. 그러나 예술적으로 보는 행위라고 해서 특별하지는 않다. 일상적으로 보는 행동 속에 좀 더 자세히, 좀 더 촘촘히, 좀 더 생각 있게 보는 것이다. 결국 본다는 것은 자기 존재의 양식과 사물을 다루는 양식의 불변적인 속성을 어렵게 눈치 채는 것이다. 제대로 본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모든 것의 시작이다.¹⁾

아른하임은 예술적으로 보는 행위가 특별한 것은 아니라며 일상적으로 보는 행위 속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진짜 본다는 것은 어렵지만은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였다.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은 자아, 즉 자기 존재를 헤아릴 수 있고 사물의 속성도 알 수 있다. 예술가라면 누구나 생각을 가지고 보고, 생각을 하면서 보고, 생각의 결과로 보려는 노력

1) 루돌프 아른하임, 『예술 심리학』 (이화여자대학출판부, 1984), pp.5~6.

이 필요할 것이다.

경험하는 감정은 실제적이고 일시적이며 상징적이다. 순간적인 물질적 감성과 이미지화된 심상은 욕구의 표현이며 소통이다. 주목할 만한 색의 특징과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인간사회는 내 작업의 중요한 설정이며 장치고 색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다. 내가 선택한 색은 주관적인 감정의 표현이고 상징이며 은유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정체성과 연관된다.

네일샵에 수없이 반듯하게 정리되어 질서 있게 나열된 매니큐어에서 집단, 관계 혹은 규율 등을 본다. 일상적이고 보편화된 매니큐어는 물질만능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소비와 사치 그리고 꾸밈과 치장으로 이미지를 강조하는 동시대의 특수성이다. 작업 내에서 보여 지는 주관적이고 심성적인 색채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생활과 감정 혹은 욕망과 욕구들의 변화를 주는 가에 주안점을 둔다.

4.2 작품 제작 방식

먼저 매니큐어를 사진으로 찍어 그 사진을 토대로 이미지를 만든다. 뚜껑을 열어 위에서 촬영하여 화면 가득 원 모양으로 보이게 찍기도 하고, 매니큐어들을 망치로 깨서 잭슨 폴록의 작품처럼 바닥에 흩뿌린 후 파편 조각을 재배치하여 우연한 효과에 인위적인 요소를 넣기도 한다.

흰 캔버스에 밀바탕 칠로 젯소(ghesso)를 얇게 물과 섞은 후 수차례에 걸쳐 얇게 바르기를 반복하여 화면을 고르게 만든 후 확대 프린트한 사진을 캔버스에 먹지를 대고 밀그림을 따낸다.

밀그림 작업을 마치면 전체 이미지와 어울리도록 적절한 배색을 선택하여 유화물감으로 바탕을 두세 번 칠한다. 배색이란 원래 목적과 기능에 적합한 미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개의 색채를 의식적으로 개개의 색채에는 고유성이 강한 것, 실제로는 그 색채 독자성에 의해 지각되는 것보다 그 색과 인접한 색과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²⁾ 되도록 붓터치를 없애기 위해

뺨뿔으로 흔들어가며 펴 바른다.

중별묘사가 들어가면 이미 그려진 화면에 색을 덧입히는데 이 과정에서 사진보다 더 중간색이 많거나 톤 변화가 다양하게 나오게 한다. 전체 화면의 분위기가 효과적인 배색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작품 제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이라이트 부분은 여러 번 중첩해서 그려 넣음으로써 반짝임을 강조하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찍을 때는 뺨뿔으로 흔들어 펴지 않고 톡톡 찍어 넣듯이 올려서 효과를 증가시킨다. 그림이 다 마른 후 반짝이는 표면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크리스탈 바니쉬(cristal vanish)를 여러 번 얇게 발라준다.

4.3 작품 속 주요색의 특징

색채는 은유와 상징, 정신 등을 보여주는 조형 언어이다. 본인은 작품에서 주로 세 가지 계열-빨간색, 보라색, 마젠타-의 색채를 선택한다.

4.3.1 빨간색이 지니는 정신적, 정서적 특징

스펙트럼의 첫 번째에 위치한 빨강은 동기부여, 자극, 활동성과 지력을 특징으로 한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다른 색에 비해서 원초적인 힘, 추진력, 강인함 등이 빨강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이 색이 지닌 아름다운 자질은 상냥함과 관대함, 번영과 감사이다. 또한 육체적인 사랑과 욕망까지도 이 색에 포함된다. 하지만 약점으로는 점잖지 못하고 조잡하고, 세련됨이 부족하고 완고함 성질이 여기에 속한다. 육체적인 잔인함, 거침과 위협의 특징도 보인다. 빨강이 본질적으로 지고 있는 강인함과 힘은 분노로 자랄 가능성이 있으며, 포악함이나 무자비함, 원망이나 혐오감으로도 표출될 수도 있다.

2) 문은배, 『색채의 이해와 활용』 (안그라픽스, 2005), p.276.

4.3.2 보라색이 지니는 정신적, 정서적 특징

파란색과 빨간색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보라색은 품위, 고상함, 자존심을 나타낸다. 왕실에 사용했던 색이며 보라색이 지닌 에너지가 가장 긍정적으로 발휘될 때에는 합일과 일체의 힘을 만든다. 그 본질적인 특징이 비전과 직관의 정신 에너지와 결부되어 운명을 엮어나갈 수도 있다. 예술적 기교, 끈기, 신중함, 현실적 인내력의 부족이다. 이 에너지를 잘못 사용하면 경솔함, 무례함, 언쟁, 다그치는 태도로 나타날 수 있다. 비현실적인 이상주의, 고립, 붕괴, 자만심, 오만함의 방향으로 퇴화할 수도 있다.

4.3.3 마젠타가 지니는 정신적, 정서적 특징

가장 고상하고 신비로운 색인 마젠타는 헌신, 노력, 존중, 감사의 자질을 포함한다. 마젠타가 순수한 형태로 이상주의를 표현하려 애쓰기 때문이다. 마젠타는 색 스펙트럼에서 마지막 색이며 다른 모든 색을 거쳐서 형성된다. 높은 수준의 이해력과 성숙함, 운영능력, 연민의 감정, 온화함, 따뜻함, 보호본능, 보살핌이 특징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정신적인 사랑을 나타낸다. 이 색의 부정적인 측면은 우월감, 속물근성, 거만함, 궁극적으로 세상을 등지고 틀어박히는 고립으로 향하는 경향이다.

4.4 작품 설명

작업을 임하는데 있어서 보여 지는 실제의 모습보다 내적 구상의 개념과 제작 과정을 우선시하였다. 사실적인 묘사를 위해 개인적인 감정을 최소화하고 객관화한 조형적 요소에 바탕을 두었다.

모든 예술작품은 그 시대의 아들이며, 때로는 감정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술 작품은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로 성립된다. 외적인 요소가 사건과 사물의 자극적 형태, 형상, 색채 등 그 시대의 산물로서 반향, 거울 같은 출현물이라면 내적인 요소는 예술가의 심성 가운데 있는 내적 감정이며, 이 감정이 관람자에게 어떤 울림과 의미로 전달되는 것이다. 심성은 육체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성이다.³⁾

예술은 형식과 내용의 결합이다. 여기서 형식은 외재적 요소이며 내용은 내재적 요소이다. 형식 없는 예술작품이 없고 감정 없는 예술 작품도 없다. 예술에서 감정을 절제하고 약화시키고 중성화 또는 중립화할 수는 있어도 감정 없는 절대객관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칸딘스키는 어떤 표현이(작품이) 예술적 표현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슴 밑바닥, 마음 심층부에서 우러나오는 어머니 같은 심성의 감정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러지는 과정에서 내적 쾌감을 불러일으키고 중첩될수록 명료해지는 색채는 인간의 감성과 감정을 대변한다. 색의 발현과정에서는 물성과 대상의 외적 재현보다 대상에서 받은 본질의 영원성을 찾고 응축된 대상을 나타내고자 한다.

칸딘스키가 언급한 색채의 울림은 하나의 심적 진동과도 같은 것으로 작품에서 드러난 시각적 조형성과 색채 또는 기법의 변화 과정을 정리하고 대상이 가지는 의미와 작품진행 과정에서 나타내려는 내면세계를 작품을 통해 풀어나가고자 한다.

3) 바실리 칸딘스키,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칸딘스키 예술론』, 권영필 옮김 (열화당, 1979), p.17.



<그림 1> *A Glittering Moment*, 23x23cm(each), oil on canvas, 2014

위 작품은 네일샵의 상품들처럼 각기 다른 색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자에 갇혀 나열되어 있다. 일정한 공간과 여백을 사이에 두고 뿔뿔히 자리한다. 매니큐어 병들은 각자의 색을 드러내고 관람객에게 선호색의 선택과 심리적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안정적인 수평적 배치와 일정한 간격의 각 작품들은 하나하나 다른 기법으로 여러 가지 색을 선보여 작품 속 색을 통한 개인의 내면적인 욕구들을 선택하게 된다. 같은 크기의 원 시리즈에서 각각의 색들은 서로 다른 느낌을 자아내고 이는 작업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색이 주는 이미지를 가장 잘 드러내준다.

<그림 2>에서 보여 지는 중요한 것은 구도인데 구도란 점, 선, 면이라는 구성의 일반 요소들을 배치하는 행위로 캔버스에 기하학적인 요소들은 채워 넣는 것을 말한다. 구도는 비교적 평면 예술에 국한된 형상과 형태들의 배치이다. 한편 구성은 점, 선, 면을 확장하여 더 많은 기하학적 물체와 도상으로 배치하는 작업으로 평면과 입체, 심지어 조각과 건축에까지 적용되며 구도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구성과 구도의 차이는 형상과 형태의 공간 및 조형 배치에서 알 수 있다. 구도가 사물이 처음 배치되는 질서화라면, 구성은 그 배치된 것들의 이동까지 포함하는 재질서화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그림에서 텅 빈 공간에 조형을 확장, 배치해나가는 작업인 구도에 신경을 쓰며 시작한 작업의 첫 시리즈이다.



<그림 2> *A Glittering Moment*, 65.2x91cm, oil on canvas, 2013

<그림 2>는 매니큐어라는 소재를 선택한 이 후 처음 구도를 잡고 한 작업이다. 매니큐어의 뚜껑을 열어 마개를 없애고 매니큐어 병들을 세워서 기대거나 나열하여 사람의 군상을 연상시키게 한다. 매슬로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규모가 크든 작든 사회 집단에 소속되어 수용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본다. 사람은 사랑하기를 원하고 다른 이에게서 사랑 받기를 원한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은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결핍되었을 때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통을 느끼며 스트레스나 임상적인 우울증 등에 취약해 질 수 있다. 이 작업에서의 소재가 된 매니큐어 병들은 각각의 사람으로 의인화되어 인간관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작업 중 문득 위에서 매니큐어를 바라보게 되었다. 위에서 본 매니큐어의 동그란 입구 부분은 사탕 같기도 하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착각도 들고 더욱 안을 들여다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우연히 일상의 사물에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소유욕이 생겼다. 이는 현대사회를 소비사회로 규정하고 소비사회에서 사물은 기호와 이미지에 의해 가치가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보드리야르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사물의 기능보다는 오히려 사물의 이미지나 기호를 소비한다. ‘어떤 사물은 소비함으로써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소비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 즉, 사물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가 중요한 것이지 사물의 기능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⁴⁾

4) 배영달, 『보드리야르와 시뮬라시옹』 (살림출판사, 2005), p.110.



<그림 3> *A Glittering Moment*, 91x91cm, oil on canvas, 2014

빨간색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색으로 자극적이고 충동적이며 강하고 선정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나의 작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간은 색을 보고 감성을 느끼는 감정적 동물이므로 빨간색을 보고 빨간색의 파장으로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인식하지 않는다. 빨간색을 사과로 연상할 수도 있고 불로 연상하거나 뜨겁다 또는 용감하다 등의 이미지 형용사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작업을 하면서 선택하는 색을 통해 나 자신의 이미지 형용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림 4> *A Glittering Moment*, 91x116.8cm, oil on canvas, 2013



<그림 5> *A Glittering Moment*, 65x100cm, oil on canvas, 2013

작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구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매니큐어를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 같아 회의까지 들었다. 매니큐어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념과 정의에서 벗어나 소재를 재해석하였다. 그 결과 산산이 부서지는 조각들과 에나멜 소재의 퍼짐으로 또 다른 작업 방향을 잡고 <그림 4,5>와 같은 새로운 작업을 시도했다.



<그림 6> *A Glittering Moment*, 53x72.7cm, oil on canvas, 2014

<그림 6>는 잭슨 폴록의 작업과 비슷한 느낌을 준다. 그는 기존의 표현 방법에서 벗어나 캔버스를 바닥에 펼쳐놓고 붓에 물감을 묻혀 떨어뜨리거나 뿌리고 때로는 끼얹거나 쏟아 붓는 드리핑(dripping)기법을 사용하였다. 여러 종류의 크고 작은 붓을 사용하면서 살짝살짝 뿌리기도 하고 힘차게 뿌리기도 해서 다양한 흔적과 궤적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나의 작품은 직접 뿌리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보고 손으로 그린다는 점에서 폴록의 액션 페인팅과 다르다.



<그림 7> *A Glittering Moment*, 80.3x130.3cm, oil on canvas, 2014

이전 <그림 4> 시리즈에서 보여 지는 바닥에 놓인 단조로운 구도가 강인함, 열정, 에너지를 약하게 만드는 것 같아 새로운 구도를 모색하였다. <그림 7>는 바닥에 종이를 대고 매니큐어를 갠 후 종이를 들어 매니큐어의 파편들과 에나멜이 섞이며 흘러내리도록 연출한 사진을 기반으로 작업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른하임의 말처럼 시각을 통해 사물을 분석하고 해석한다는 사실에 집중하였다. 단순히 펼쳐진 상태에서 위치만 바뀌어도 큰 변화가 있었고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구도로 역동적인 삶의 에너지를 표현하였다. 인간의 욕구는 다 충족되지 못한다는 매슬로의 이론에 중점을 두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곧 성장으로 이르게 되는 과정을 작업에 담고자 하였다.

우리가 기존에 만족을 느낀 일들에 익숙해지고 때론 그러한 일들에 권태로움을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일보다 더 즐겁고, 더 기쁘고, 내적으로 더 만족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성장이 이루어진다. 즉, 무엇이 우리에게 적합한가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이 다른 대안들에 비해 주관적으로 더 만족스러운가를 알아보는 것이다.⁵⁾

내가 무언가에 만족하게 되는 순간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것이 결국 나를 성장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매슬로의 이론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서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의 성향은 작업에서의 강한 성장 동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회화의 다변화와 아울러 표현의 변화도 계속 시도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되었다.

5) 아브라함 H. 매슬로, 『존재의 심리학』, 정태연 옮김 (문예출판사, 2005), p.145.



<그림 8> *A Glittering Moment*, 26.5x53cm, oil on canvas, 2014



<그림 9> *A Glittering Moment*, 50x100cm, oil on canvas, 2014

마지막 시리즈 <그림 8>과 <그림 9>은 매니큐어의 파편만을 모아놓은 구성으로 다양한 조각들에서 느껴지는 율동감과 배색의 배치가 포인트다. 색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늘 다른 색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색채 배색을 전제로 한다.

어떤 감정이나 개념에서 가장 먼저 연상되는 색이 주요색이라면 주요색과 함께 배색되는 색의 중요성을 알기에 작업에서 색 선택의 과정은 늘 신중한 자세를 요하게 된다. 갖고 싶은 색, 욕망하는 색, 꾸미고 싶은 색, 꿈꾸는 색 같은 주요색들의 이미지 형용사 선택은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된다.

또한 무절제하게 부를 욕망하고 사랑하는 탐욕이라는 감정의 실체를 드러내고자 한 작품이다. 불교에서 ‘갈애(渴愛)’라는 말이 있듯이 마실수록 더 마시게 되는 밑도 끝도 없이 치명적으로 중독적인 욕망이 바로 갈애이자 탐욕인 셈이다.⁶⁾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한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절대적인 수단이 된다. 절대적인 수단은 동시에 절대적인 목적이기도 하다. 아이러니하게도 관심과 애정을 받기 위해 돈을 벌고 모으지만, 돈에 대한 갈망이 커질수록 우리는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직접적인 관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간의 탐욕이라는 감정의 욕구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을 통해 동시대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한다.

6) 강신주, 『강신주의 감정수업』 (민음사, 2013), p.100.

V. 결 론

예술은 의도적이며 주관적인 예술 행위가 어떻게 해서 필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인간적인 본성의 개념에서 그 가능성의 근거를 묻는 것이다. 본인에게 있어서도 색을 바라보는 방식은 지극히 주관적이며 심리적이다. 색은 자신의 내면세계를 객관화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구 충족의 수단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의 형식이나 조형적 내용을 분석하기보다 작업의 형성 배경이 된 색이 인간에게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작품의 형성 배경과 제작 과정에서 생기는 욕구와 물질 사회에서 사치라는 이미지를 매니큐어를 통해 동시대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작품의 조형적 측면에서 나타난 표현 기법과 재료, 형태 변화를 사진 이미지를 기반으로 캔버스에 유화물감으로 그리며 색이 욕망을 대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기반에 두었다. 인간의 감정이 색보다 훨씬 더 다양하므로 색채가 드러내는 감성에 집중하였다. 심리적 욕구를 매니큐어라는 소재로 더 욕망하고자 하는 욕망, 욕망의 대상이 되고픈 욕망을 색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인은 작품을 통해 소비시대에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사치스러운 욕망의 단편을 시각적으로 형성하여 인간의 심리적인 욕구에 대해 탐구하고 새로운 회화적 시도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강신주. 『강신주의 감정수업』. 민음사, 2013.
- 김진한. 『색채의 원리』. 시공사, 2002.
- 권영걸 외 25인. 『색이 만드는 미래』. 도서출판 나들목, 2002.
- _____ 외 25인. 『이제는 색이다!』. 도서출판 국제, 2002.
- 노무라, 준이치. 『색의 비밀』. 김 미지자 옮김. 도서출판 국제, 2005.
- 라 캉, 자크. 『욕망 이론』. 민승기 옮김. 문예출판사, 1994.
- 램버트, 매리. 『색다른 색 이야기』. 유영석 옮김. 도서출판 나들목, 2003.
- 모진스카, 안나. 『20세기 추상 미술의 역사』. 전해숙 옮김. 시공사, 1998.
- 문은배. 『색채의 이해』. 도서출판 국제, 2002.
- _____. 『색채의 이해와 활용』. 안그라픽스, 2005.
- 매슬로, 아브라함 H. 『동기와 성격』. 오혜경 옮김. 21세기 북스, 2009.
- _____. 『존재의 심리학』. 노현정·정태연 옮김. 문예출판사, 2005.
- 배영달. 『보드리야르와 시뮬라시옹』. 살림출판사, 2005.
- 아른하임, 루돌프. 『예술 심리학』. 이화여자대학출판부, 1984.
- 진동선. 『사진 예술의 풍경들』. 살림출판사, 2013.
- 칸딘스키, 바실리.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칸딘스키 예술론』. 권영필 옮김. 열화당, 1979.
- 크리거, 베레나. 『예술이란 무엇인가』. 조이한 옮김. 휴머니스트, 2010.
- 콜브룩, 클레어. 『들뢰즈 이해하기』. 한정현 옮김. 그린비, 2007.

ABSTRACT

Human Needs Expressed by Colors

Yu-Na Kang

Major in Contemporary Painting

Dept. of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thesis examines the process of my work that deals with the theoretical system on colors. It focuses on the production technique and the roles of colors that express emotion. Color and emotion are not simply about coincidence or taste. Rather, they are the fruits of lifelong experience that took roots with language and thoughts from our childhood. Therefore, color and emotion are based in psychological symbols and historical traditions.

Human needs are much more varied than colors. Even the same color can cause different or conflicting impacts at times. Emotions revealed on colors are more touching and faster than any languages. They are recognized precisely and can advocate diverse psychological desires.

Therefore, color in artwork is a fundamental element that shows the artist's intention in the most direct way along with form.

Nail polish in my work means a symbolic desire of contemporary people. Goods that are consumed in the material society mean more than useful products. They reflect people's desire to be different. People want to decorate themselves and this desire is not simply personal. It reveals individuality as well as taste while the amount of consumption judges each individual.

My work focuses on painting implicit human needs through colors. I attempt to understand psychological phenomenons and present emotions that are expressed unconsciously through colors and various techniques. Furthermore, I would like to find a new possibility of painting by illustrating extravagant needs of human in this age of consumption.

【Key words】 colors and emotions, impacts of colors, symbolic desires,
needs to be different, the age of consumption